

조운과 탁상수 비교 연구*

— 지역 사회운동단체 활동과 시조 창작을 중심으로 —

우 은 진**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1) 민중의 일상적 삶에 대한 형상화 |
| 2. 지역 사회운동단체 참여와 시조동
호회 활동의 병행 | —조운 시조의 경우 |
| 3. 좌파 민족주의 시조의 두 양상 | 2) 민중이 처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
관—일부 탁상수 시조의 경우 |
| | 4. 나오며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20년대에 각각 전남 영광 지역과 경남 통영 지역에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현대시조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를 확립해갔던 조운과 탁상수의 사회활동과 시조 창작을 비교 고찰하고 있는 연구이다. 1920년대의 시조는 흔히 계급문학에 대립되는 우파 민족주의의 문학으로 규정되곤 한다. 그러나 조운과 탁상수는 당대 사회주의 성향의 지역 청년단체에서 주요인물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시조를

* 본 논문은 2015년 12월 5일 한국문학회 추계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1920년대 조운과 탁상수 시조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창원대학교 강사

창작함으로써, 1920년대 좌파 민족주의 시조의 가능성을 검토하게 하는 시인들이다. 곧 그러한 측면에서 그들의 시조는 1920년대 시조 문학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재고할 수 있게 하는 지점을 마련해주고 있다. 한편 그들은 사회의식을 시조에 담아내는 차원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조운이 민중의 일상에 대한 관심을 시조 전반에 드러냈다면, 탁상수는 일부의 시조에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그들의 사회활동과 시조 창작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1920년대 시조 담론의 지형을 재인식해보고자 하고 있다.

주제어 : 조운, 탁상수, 시조, 1920년대, 지역, 사회운동단체

1. 들어가며

1920년대는 근대문학장에서 조선의 근대문학에 대한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던 시기였다. 그러한 가운데 근대문학장 안에서 새롭게 시조를 창작하는 일도 일군의 문학자들에 의해 조선적 근대시 창출의 한 방법으로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문학지상에 시조 장르의 의의와 형식, 창작 방향 등을 논하는 시조론이 대두했고, 의의를 둘러싸고 시조 논쟁도 벌어졌다. 1920년대 시조론의 담론장이 된 매체는 『조선문단』, 『동아일보』, 『신민』, 『조선지광』 등이었으며¹⁾, 기성 시조시인으로서 인정받

1) 이 매체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다소 달랐으며, 그에 따라 시조에 대한 입장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조선지광』의 경우 계급주의적 담론을 바탕으로, 시조부흥을 지지했던 다른 매체들과 달리 그것을 비판하는 담론을 펼쳤다. 그리고 이 시기의 시조는 대립되는 입장의 문학인들이 주고받는 논쟁을 통해 장르의 성격과 그에 대한 운동의 방향을 보다 더 분명하게 정립시켜 나갈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계급문학에 대립된 우파 민족주의적 민족문학의 입장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시조도 존재하고 있었다. 논쟁을 통한 시조 담론의 정립에 관해서는 우은진, 『1920-40년대 시조 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

으며 시조론을 주도하고 있던 문학인은 최남선, 이병기, 이은상 등이었다.

그러한 1920년대의 시조 담론은 우리 문학사에서 일반적으로 시조부흥론으로 요약되어 서술된다. 시조부흥론은 시조에 현대성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조선 근대문학의 주요 장르로 만들고자 하는 입장을 지닌 문학자들이 주장하던 담론이었다. 그런데 이 시조부흥론은 사상적으로 카프 계열의 계급문학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복고적 또는 우파 민족주의적 지향성을 지닌 문학 담론으로만 한정되어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20년대 근대문학장에서 시조부흥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계급문학이 담지하고 있는 이념인 사회주의와 연관을 가지며 시조시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갔던 문학인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운과 늘샘 탁상수이다.²⁾ 같은 시기에 좌파 문학인으로서 계급의식을 담은 시조를 창작한 인물로는 카프의 맹원이었다가 탈퇴하여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했던 권구현도 있다. 그는 시와 시조, 소설, 평론, 미술 등 여러 방면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저항의식을 담은 오십 편의 시조를 남겨 1920년대 좌파 시조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³⁾ 그리고 조운과 탁상수는 당대 문화민족주의 담론으로서 나타난 시조부흥론의 자장 속에 있었던 동시에⁴⁾ 사회주의 성향의 운동단체에서 활동하며, 좌파 민족주의 사상의 영향을 드러내는 시조를 창작함으로써, 당대 또 다른 시조 경향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시인들로 파악된다.

사학위논문, 2015. 2, 38-45쪽 참조.

2) 탁상수는 매체에 작품을 발표할 때 늘샘이라는 호를 주로 사용하였다. 참고로 조운의 경우 본명이 조주현이었고 운은 그의 호였으나, 조운으로 개명함으로써 호가 따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3) 고현철, 『구체성의 비평』, 전망, 1997, 295-327쪽 참조.

4) 조운과 탁상수 모두 문화민족주의 차원에서 시조부흥을 주도하고 있던 『조선문단』과 『동아일보』를 중앙문단에서의 주요 활동매체로 삼고 있었으며, 조운의 경우 『조선문단』에 시조부흥론을 지지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조운, 『丙寅年과 時調』, 『조선문단』 제20호(제4권 제2호), 1927. 2, 29-37쪽.

조운과 늘샘 탁상수는 1920년대부터 각각 전남 영광 지역과 경남 통영 지역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사회운동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시조동호회를 만들어 시조의 창작과 보급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다. 또한 그들은 근대문학장에서 시조 시인으로 등단·활동하기 전에도 각각의 지역에서 시조를 창작·연구·가창하며 시조에 대한 관심을 지지고 있었던 이들로서, 근대문학장에 진입한 직후에는 시조와 자유시를 함께 썼으나 점차 시조 창작에 집중하며 시조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문학인들이다. 같은 시기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공통분모들을 가지며 시조 창작을 했던 두 문학인을 비교하는 작업은 사상적·공간적 차원 양면에서 1920년대 시조의 지형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조운과 늘샘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그것들이 그들의 시조 창작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보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조운과 늘샘의 시조를 비교한 선행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조운의 경우 생애와 작품론 측면에서 일정한 연구가 이루어져 온 편이지만,⁵⁾ 늘샘의 경우에는 통영 지역의 대표적 문인으로 꼽히면서도 연구 측면에서는 1920년대 통영 지역 시조동인지 『참새』지의 동인으로서 부분적으로 언급⁶⁾되어 왔을 뿐이다. 최근 김보한의 연구⁷⁾에 의해 늘샘의 생애와 작품 등이 정리되었으나, 그 문학에 대해

5) 곽동훈, 『조운 시조 연구』, 『배달말』 제16호, 배달말학회, 1991; 김종호, 『조운론』, 『한국시조작가론』, 국학자료원, 1999; 소래섭, 『조운 시조 연구』, 『한국현대문학 연구』 제9집, 한국현대문학회, 2001; 조운경, 『현대시조의 형성 배경과 형상성-가람과 조운 시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조창환, 『조운론』, 『인문논총』 제1집, 아주대학교, 1990.

6) 임선묵, 『〈참새〉지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3; 박태일, 『근대 통영지역 시문학의 전통』,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통영·거제지역 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1999, 347-387쪽.

7) 김보한, 『탁상수의 발자취와 시세계 고찰』, 풍해문화재단, 2015.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들 시조가 확보하고 있는 사상적 지점의 의의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비교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본론의 장을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조운과 늘샘이 각자의 지역에서 보여주었던 시조동호회 활동과 함께 사회운동 단체 활동을 살펴서 그들이 지닌 사회와 민족에 대한 의식을 고찰하고 있다. 둘째, 그러한 그들의 의식이 실제 시조 창작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당대에 발표한 작품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조운과 늘샘의 사회 활동과 시조 창작을 비교 연구하는 작업은 1920년대 시조 담론을 우파 민족주의 한 가지로 단순화시키지 않고, 그 지형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보다 복합적·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지역 사회운동단체 참여와 시조동호회 활동의 병행

1920년대는 청년담론이 근대의 사회적 주체 형성 담론으로 조선 사회에 전면적으로 부상한 시기였다. 1900년대를 전후하여 태어나 근대교육을 받았으며 3·1운동 체험을 공유한 세대가 이 시기에 ‘청년’으로 지칭되며, 『동아일보』, 『개벽』 등의 매체에 의해 문화운동의 주역으로 부각되었다. 당대에 많은 매체가 청년담론과 청년단체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청년단체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했다.⁸⁾ 이때 청년단체는 1921년부

8) 현재와 같은 곧 근대적 의미의 ‘청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그보다 앞선 1890년대였다. 그리고 1900년대 이후 애국계몽운동의 전개와 함께 그 말의 사용이 확산되며, 젊은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근대 조선 사회에 정착했다. 1910년 국권 상실 이후에는 유학생들에 의해 ‘청년’을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전위로 내세우는 청년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청년담론이 사회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근대 주체를 형성하는 담론으로 자리 잡은 때는 1920년대였다. 이 시기에

터 새로운 사상이자 사회운동으로 보급되고 있었던 사회주의 위에서 배태된 것이 많았다. 1926년 9월 일제경무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사상단체 수는 청년단체 1092개, 정치사상단체 339개, 노동단체 192개, 형평단체 130개였다고 한다.⁹⁾

조운과 늘샘도 각자의 거주 지역에서 사회적 주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청년으로서 사회운동단체 활동을 했다. 1920년대의 사회운동단체 활동 중 중요한 사업으로 꼽히는 것은 대중 활동이었다. 대중에게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보급하기 위해 강연과 야학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¹⁰⁾ 조운과 늘샘은 사회운동단체에서 그 대중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었다.

먼저 조운은 일찍부터 영광 지역의 청년회와 영농회에 중심인물로 참여하며, 1919년 3월 14~15일에 그 단체들이 주동하여 벌인 독립운동에도 가담했다. 조운은 그로 인해 일제의 감시를 받게 되어 만주로 피신해야 했는데,¹¹⁾ 그 후 1921년에 다시 영광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 사회운

는 여러 사회세력들이 각기 다른 청년상을 제시하며, 청년담론들 사이에 경쟁, 배제, 포섭 등 다양한 관계를 빚어내기도 했다. 여러 사회세력이 펼친 문화운동에서 ‘청년’은 그 표상이 실제로는 계급적일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세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920년대에 ‘청년’은 사회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민족 통합주체로서 내세워질 수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당대의 신문들은 투고와 지방기사를 주로 게재하는 4면을 거의 매일 전국 각지 청년회의 조직과 근황, 각종 강연과 행사 소식으로 채웠다. 그 기사들을 참고하면 청년회의 수는 1920년대 초부터 급속히 늘어났고, 언론을 포함하여 전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현실 속에서 그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대 ‘청년’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제37호, 문화과학사, 2004. 봄, 217-218쪽; 이기훈, 『청년의 시대—1920년대 민족주의 청년담론 연구』,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 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역사비평사, 2007, 258-259쪽, 262-263쪽, 306쪽.

9)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7, 109쪽.

10) 이기훈(2004), 앞의 글, 218쪽.

11) 참고로 조운은 그때 만주에서 최서해와 만나 교분을 쌓게 되었다. 조운과 최서해는 그 시기부터 사회주의 성향의 사회의식을 가진 청년들로서 뜻이 잘 맞는 동지였으리라고 짐작된다.

동단체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문학단체를 결성했다.

1922년 영광학원의 국어교사가 된 조운은 다른 교사들과 함께 ‘자유예원’을 결성하여 일반 학생과 부녀자들을 문학 활동에 참여시켰고, 시조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추인회도 창립했다. 또한 영광청년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며, 한글회와 토우회, 영광청년동맹 등에 그 창립 때부터 중심인물로서 영광 지역 사회운동사업을 주도했다. 이는 당시 신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1920년대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조운은 영광청년회에서는 사회교육부 통속교육 위원으로 신임되었으며,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협동을 바탕으로 한 무산농민회 조직을 강령으로 내세운 토우회에서도 주요 발기인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중앙협의회 집행위원도 맡았다. 또한 한글회에서는 간사로 활동하며 한글 연구발표를 했다고 한다.¹²⁾ 청년운동과 농민운동에 참여하며, 대중에게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대중강연을 펼치는 등 조운의 활동은 당시 사회주의 진영이 사회운동에 진출하여 하고 있던 활동과 맞닿아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 近來 일찍 열린 곳이다. 새 學識, 새 思想 가진 靑年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浮華한 風氣는 없이 質實 勤勉하다. 靑年會・勞動會・土友會・秋蟬會 따위가 있어 그 進行하는 방법은 달라도 서로 妥協的으로 平和스럽게 지낸다. 이만한 富邑이고 보면 酒肆花道에 汨沒하는 靑年이 많을 것이로되 이 靈光에서는 그리 볼 수 없다. 많은 希望과 期待를 가지고 볼 것이다. 이번 한글 講習會에도 靑年男女 七十名이 精誠스럽게 와 들었다.¹³⁾

12) 「호남지방」, 『동아일보』, 1926. 5. 1; 「농촌중심운동차 토우회를 발기」, 『동아일보』, 1926. 12. 22; 「토우회 창립 거입일 영광서」, 『동아일보』, 1927. 3. 24; 「호남지방」, 『동아일보』, 1927. 4. 27; 「순회탐방(삼백십일)－백사실팔의 도서로 위군<7>」, 『동아일보』, 1927. 5. 9.

13) 이병기, 「日記抄」, 『가람文選』, 신구문화사, 1966, 119쪽.

1927년 7월 27일 가람일기에서도 당시 영광지역에서 청년회, 노동회, 토우회, 추인회 등의 단체가 조운을 포함한 청년들을 주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가람 이병기는 조운과의 친분으로 영광지역에 한글강습회를 하러 간 것이었다.

조운은 그 후 설립된 사회주의 단체인 영광청년동맹에도 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다. 영광청년동맹은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일제가 관리하고 있던 영광공립보통학교에서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불합리한 처분을 내리자 실행위원회인 부형회를 조직하여 학생들에 대한 처분의 무효화와 제도의 개선, 일본인 교장의 사임 등을 요구하며 그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조운은 강연의 연사로 나서고 실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조운의 사회운동단체 활동과 맞물려 원래 시조 연구와 창작을 위해 창립되었던 추인회의 활동에서도 점차 사회적인 성격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인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각종 강연회를 주최하기도 하는 등 문학적·사회적으로 민중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1927년 11월 24일 『동아일보』에서도 시가에 취미가 있는 동지들이 모여서 시가 연구를 해오던 단체인 영광 지역의 추인회가 민중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민중들이 원하는 노래를 만들어내자는 강령을 세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청중들을 모아 시조회를 개최했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다.¹⁵⁾

이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조운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감각은 민중으로서 민족과 그들의 삶에 대한 밀착된 관심이다. 그리고 이는 시조 창작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실제 작품에서 그와 관련된 경향을 넓게 찾아볼

14) 「양개청년동맹 성황리에 원만히 설립」, 『동아일보』 1927. 12. 14; 「영광」, 『동아일보』, 1928. 4. 30; 「법성공보교 월사체납사건 청년동맹서 토의」, 『동아일보』, 1928. 6. 5; 「수업료징수제 개선조건요구」, 『동아일보』, 1928. 6. 29.

15) 「호남지방」, 『동아일보』, 1927. 11. 27.

수 있다.

다음으로 늘샘 역시 조운과 비슷한 시기인 1920년부터 통영 지역에서 청년단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늘샘은 형 탁만수와 함께 통영청년단에 출자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¹⁶⁾

이후 늘샘은 통영청년동맹의 회원으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영청년동맹은 통영 사상단체의 효시로서, 벽신문 『거화』를 제작하고, 강연을 개최하며, 통영 지역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이끌어갔던 단체였다. 참고로 1926년에 제작하는 벽신문의 제호를 따라 거화동맹으로 단체의 명칭을 바꿨다. 불온하다는 이유로 당국의 제재를 받아 『거화』가 압수·삭제되거나 발행금지가 되고, 강연회가 취소되었다는 기사들을 볼 때 그 성격이 매우 저항적인 단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늘샘은 그 단체의 임시총회에서 의장을 맡을 만큼 중심인물이었다.¹⁷⁾

늘샘은 벽신문 『거화』에 시조를 발표하기도 했다. 1928년 2월 16일 『동아일보』에 발표된 「구고수제(舊稿數題)」라는 시조의 말미에는 ‘二七年『炬火誌』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다. 즉 1927년에 벽신문 『거화』에 먼저 발표했던 작품을 재게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늘샘이 사회주의 사상의 사회운동단체에서 창작 차원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그 활동에 시조 장르를 활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와 함께 늘샘의 경우에는 1920년대 통영 지역에서 『참새』를 발간했던 시조동호회 참새 동인 내에서의 활동과 문우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새』는 경남·부산 지역에 거주하며 문학 활동을 하고 있던 통영 출신의 문학인들이 발간한 시조동인지이다.¹⁸⁾ 시조 장르를 중심으로 매체를

16) 「청년단 출자 근황」, 『동아일보』, 1920. 7. 7.

17) 「벽신문 압수」, 『동아일보』, 1926. 5. 18; 「거화이호 발행」, 『동아일보』, 1926. 7. 31; 「하계대강연」, 『동아일보』, 1926. 7. 31; 「거화동맹임총」, 『동아일보』, 1926. 10. 8; 「적로혁명기념」, 『동아일보』, 1926. 11. 7, 「통영 정의, 거화」, 『동아일보』, 1926. 11. 11.

발간한 『참새』의 인식은 근대 조선문학으로서 시조를 창작하고 지지하려 했던 당시 중앙매체의 시조부흥론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¹⁹⁾

그런 한편 늘샘은 편집인으로서 진산 이찬근과 함께 『참새』의 발간을 주도하는 동시에 많은 작품을 발표하면서도, 통영청년단과 신간회 통영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개벽』에 계급문학 관련 글을 게재하고 있었던 쇄피 김기택 역시 참새 동인으로 『참새』지에 시조 작품과 시조론을 발표하며 사회주의자의 시조 창작을 보여주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늘샘은 『참새』 외의 매체에서도 다수의 시조 창작 활동을 드러내며 시조시인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참새』에 수록되어 있는 시조를 살펴보면 고시조의 전통에 따라 자연에 대한 소박한 관조를 담고 있는 작품이 대다수이며, 종장의 마지막 구를 생략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²⁰⁾ 그러나 그와 동시에 『참새』에서는 두 가지 지점에서 사회주의적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

18) 『참새』는 1926년 8월에 창간되어 1927년 1월까지 통권4호를 발행한 통영지역 시조동인지이다. 1983년에 『충무문학』 제3집에 통권4호에 해당하는 제2권 1호가 영인되어 나왔으며, 이후 조정 김상옥 시인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가 공개되고 또 그것이 임선목에 의해 정리됨으로써 전권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참새』는 작품 수록의 양에서 시조 중심이라는 매체의 지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조동인지이다. 창간호에서부터 73편의 시조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종간까지 총262편의 시조를 게재하고 있는 점이 그 지향을 증명한다.

19) 늘샘은 시조창 가인이었던 동시에 1920~30년 사이에 중앙매체에도 시조를 많이 발표한 문학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이는 이전부터 시조창의 형태로 시조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과 교류해왔던 점과 『참새』 발간을 통해 그것을 근대문학으로서의 시조 창작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했던 점이 맞물려 획득될 수 있었던 결과였다. 이렇듯 음악으로 향유하던 시조를 문학으로 창작하는 변용은 당대에 시조를 고시조에서 현대시조로 변용시키고자 하는 1920년대 시조부흥론의 핵심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20) 그러면서도 자연과 일상에 대한 정서를 관념적 시선에서 ‘지금-여기’의 실감실정을 표현하는 시선으로 전환해가고자 하고 있으며, 마지막 구를 생략 불가능한 내용이나 문법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째, 저항적인 내용의 시조와 프로의 입장에서 부르주아를 비판하는 시조를 일부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중에 대한 우리말, 우리문학의 보급과 익숙한 전통 장르를 바탕으로 한 민중의 예술 성립이라는 차원에서 시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²¹⁾ 『참새』 동인은 통권 제2호부터 그 수가 증가하는 반면 『참새』에 수록된 시조 작품의 미학적인 완성도는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창간호를 만든 문학인들이 시조에 관심이 있는 문학도나 일반 대중을 동인으로 참여시켰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점들을 바탕으로 『참새』를 사회주의 성향의 문학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1920년대의 문화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민중의 노래라는 측면에서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양상을 매체 차원에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늘샘의 인식은 창작에서 사회 비판적 내용을 담은 시조와 자연에 대한 관조적 내용의 시조 두 갈래로 나타난다. 양적으로 보자면 후자의 경향을 가진 시조의 수가 더 많다. 따라서 일부인 전자의 경향을 중심으로 늘샘의 작품세계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20년대 시조의 사상적 지형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점은 분명하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3장에서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의 작품 경향이다.

21) 이와는 다소 다르지만 시조가 프로문학의 대중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험된 사례는 『조선지광』에 발표된 권구현의 『時調6章』(제6권 10호, 1926. 11)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시조는 과거적이지만 그렇기에 현재 민중에게 익숙한 장르로서 실험 차원에서 잠시 허용되었던 듯하다. 참고로 『조선지광』에서는 권구현의 『時調6章』을 제외하면 더 이상 발표된 시조 작품을 찾아볼 수 없다.

3. 좌파 민족주의 시조의 두 양상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문단』, 『신민』, 『동광』, 『신생』 등의 잡지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등의 신문 매체에서는 시조 작품을 다수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대의 문화민족주의적 조선문화 탐구 경향과 연관이 있는 현상이었다. 그 조선문화 탐구란 민족의 정신적·문화적 공통성을 강조함으로써 문화 차원에서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한글연구와 고전시가 양식 논의가 그 탐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속에서 시조는 조선적 문학을 고민하던 이들에 의해 한글문학이자 고전시가 양식으로서, 조선 근대문학으로 재창출될 수 있는 장르로 선택·인식되었다.²²⁾ 그리고 1926년에는 최남선의 『朝鮮民族文學』으로서의 時調,²³⁾를 필두로 시조부흥론이 전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단의 흐름은 조운이 1927년 2월 『조선문단』 제20호에 게재한 그의 유일한 시조론 「丙寅年과 時調」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⁴⁾ 그와 함께 잡지에 게재되는 시조의 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었다.²⁵⁾

22) 순수한 조선 문학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실현 방안으로서 ‘시조의 부흥’ 주장을 전면화한 본격적인 시조부흥론은 1920년대 중반 『조선문단』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우은진, 앞의 논문(2015), 46쪽.

23) 최남선, 『朝鮮民族文學』으로서의 時調, 『조선문단』 제16호, 1926. 5, 2-7쪽.

24) “그리다가 昨年の『朝鮮文壇』에 비롯오 요한의 『習作數題』와 六堂, 가람의作과拙作『嘆湖淸調』가 나타나게되며 文壇人의注目を 끌게되여 今年으로 들어서면서는 제법 한자리를 어더 文壇正面에 나타나게되였다 따라서 그에關한論과 研究도만히 나오게되였스니 朝鮮文壇에連載한 六堂의 『朝鮮國民文學』으로의時調, 와 『時調胎盤』으로의朝鮮民性과民俗의二論文과 新民七月號의 『時調와時調에表現된朝鮮사람』이란 孫晉泰氏의 論文과 廉想涉氏의 『時調에對하야』(朝鮮日報所載)와 요새東亞日報에連載中인 李秉岐氏의 『時調란무엇인고』等이다.” 조운, 앞의 글, 31-32쪽.

25) 『조선문단』에만 1924년부터 1927년까지 159수가 실렸을 뿐만 아니라 『동광』에도 1926년부터 시조작품이 발표되기 시작해 1927년까지 2년 동안 92수가 실렸다. 또한 『신생』에는 1928년부터 시조가 등장했는데, 1930년까지 154수가 발표되었다. 박경수,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재

조운과 늘샘은 그 이전부터 시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었는데, 그러한 1920년대 중반 근대문학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그 시기부터 중앙문단의 매체에 시조 작품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시 『조선문단』과 『동아일보』에 주로 작품을 발표하며, 당시 그 매체들이 가지고 있던 시조 담론의 자장 위에서 근대문학장의 전문적인 시조 시인으로서 지위를 획득해갔다. 그들은 조선 민족의 문학으로서 시조를 재인식하고 현대적으로 창작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시조부흥론과 그 지향을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에 대한 의식과 실제 창작의 양상에서는 다소 다른 결을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시조 담론사 차원에서 보면, 1920년대는 근대문학장에 대두한 시조 논쟁 속에서 ‘지금-여기’에 시조가 어째서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이 현재적 시조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논의를 통해 문학으로서의 시조를 재창출해가던 시기였다. 즉 시조의 현대성 획득을 실험 또는 도모해가던 시기였다. 그 흐름 속에서 시조시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던 조운과 늘샘도 시조 창작을 통해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때 조운과 늘샘이 1920년대 근대문학장에서 시조시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갔던 까닭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당대에 시조부흥론이 뚜렷한 담론으로 등장함으로써 문학장에서 시조 장르가 전면적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조운과 늘샘이 원래 각각 영광과 통영 지역에서 시조에 관련된 활동을 해오고 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중앙문단에 진출하여 근대적 시인(작가)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그들은 중앙문단 진입 초기에 자유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조부흥론의 대두로 시조가 근대문학 장르로서 재창출되자, 그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조에 대한 관심을 근대문학장 위에서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관심은 중앙매체에서는 주로 작품 창작과 발표의 차원에서 표출되었으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는 시조 동인회 활동의

인식』, 국학자료원, 2010, 30-178쪽에 정리되어 있는 표를 참고.

본격화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조의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 시도될 수 있었다. 그 중 특히 내용 측면은 그들이 활동했던 사회운동단체의 사상과 관련하여 그들의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고찰해볼 수 있는 있는 부분이다.

1) 민중의 일상적 삶에 대한 형상화—조운 시조의 경우

조운의 경우, 중앙 매체에 처음 발표한 작품은 1921년 4월 5일 『동아일보』 독자문예란에 당선된 자유시 「불살려주오」였다. 그러나 중앙 매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때는 1924년 11월 『조선문단』 제2호에 자유시 「초승달이 재넘을때」, 「나의사람」, 「울기만 했서요」를 발표한 이후였다. 이때 『조선문단』에서 조운의 시는 처음부터 독자투고 ‘입선’이나 신인 ‘추천’의 형식이 아닌, 기성문인의 작품으로서 게재되고 있었다.²⁶⁾ 한편 조운이 중앙매체에 시조를 발표한 것은 1925년 5월 『조선문단』 제8호에 「법성포십이경」이라는 시조 작품을 게재한 때가 최초였다. 그 이후 조운은 1927년까지 여러 매체에 자유시와 시조를 병행하여 발표했다. 그런데 그 발표 작품 수를 보면, 1926년부터 자유시보다는 시조를 더 많이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1927년에는 7월에 단 두 편을 발표한 것을 끝으로 자유시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운은 해방기까지 시조만을 창작·발표했으며, 작품집의 경우에도 단 한 편의 시조집²⁷⁾만을 출간하였다. 즉 시조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확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때 조운은 당대 계급문학이 일반적으로 비판·배제하는 시조 장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면서도 내용 측면에서는 좌파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은 민중 의식을 담

26) 참고로 당시 『조선문단』의 필진을 소개하는 특집기사에도 조운은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기성문인으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다. 「文士들의 이모양저모양(5)」, 『조선문단』 제5호, 1925. 2, 106쪽; 「文士들의 얼굴(二)」, 『조선문단』 제16호, 1926. 5, 56-57쪽.

27) 조운, 『조운시조집』, 조선사, 1947.

음으로써 좌파 민족주의의 시조 경향을 드러낸다.

한편 조운이 그렇게 점차 시조만을 발표하게 된 까닭은, 『조선문단』에서 진행되고 있던 민족적 시형에 대한 논의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으나, 이는 시에 대한 관심에서 시조에 대한 그것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은 아니었다.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운은 앞선 시기인 1920년대 초반 무렵부터 이미 영광 지역에서 추인회(秋蚓會)라는 시조 동인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²⁸⁾ 당대에 『동아일보』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따르면 추인회는 시조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된 동인회였으며 한 달에 한 번 동인의 작품을 편집·발간했다고 한다.²⁹⁾ 말하자면 조운은 시조부흥론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시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지역에서의 문학 활동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즉 조운은 중앙매체에 작가로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초기에는 근대 시 형식인 자유시를 실험했으나, 중앙매체에서 민족적 시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조가 근대 조선문학의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하자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조에 대한 관심을 창작으로 다시 표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관심의 표출은 먼저 실감실정과 형식에 대한 실험으로 나타났다.

28) 앞서 언급했듯이 조운은 1920년대 초반부터 영광지역에서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 추인회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의 최초 문학 동인이라고 평가되는 자유예원(自由藝園)도 조운이 조직하여 이끌었다고 알려져 있다. ‘자유예원’은 영광중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동인회였는데, 정기적인 문학 행사로 일반 학생과 부녀자들의 참여도 끌어냈으며 『자유예원』이라는 향토문예지도 등사판으로 발간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문학 동인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문단』에서도 조운에 대한 글에서 “靈光에 讀書俱樂部이니 其他文獻이 만흔모양”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그 활발한 문학 활동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文士들의 이모양저모양(5)』, 『조선문단』 제5호, 1925. 2, 106쪽; 전남 문인협회·전남문학백년사업추진위원회 편, 『전남문학변천사』, 한림, 1997, 105-106쪽, 134쪽, 507쪽, 536쪽 참고.

29) 『순회탐방(三百十一)-백사십팔의 도서로 위군-』, 『동아일보』, 1927. 5. 9.

저물자 물이미니 갈매기도 따라든다
 浬湖에 달이밝고 月浪臺 물은잔데
 바람은 가을을먹음어 살낭살낭부더라(1수)

달이배를 따르다가 배가달을 따르다가
 배머리 빙긋둘제 물결이櫓에 부드치면
 앓불사 조각조각부서져 뱃전으로 돌더라(5수)

풍덩실 뛰어들어 이달을 건져내라
 훨훨 날나가서 저달을 안아오라
 머리를 들었다숙였다 엇절줄을 몰나라(6수)

◇浬湖는 法聖浦압바다의 이름이니 四面에山이돌너잇서 湖水와 갓흔
 지라 흔히글에는 浬湖라는 雅號를 쓴다...(중략)...◇그글은 平時調로써
 長篇을 시험한것이다 웅색한 點은만히發見하였다

◇어떤句는 初章中章의區別을 세지안코 終章만을 부쳐도 보았다 이
 것도첫시험이다

—作者의말—

— 조운, 『浬湖清調』 부분 -30)

위의 시조는 1925년 10월 『조선문단』 제12호에 발표된 조운의 작품이
 다. 전체적으로 실제 법성포 앞바다에 나가서 보며 느낀 바를 시각적으
 로 묘사하고 있다. 이병기는 근대적 감각으로서의 ‘사생(寫生)’이라는 개
 념³¹⁾을 가져와 이러한 조운의 시조를 고시조와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30) 각 수의 끝에 붙인 괄호 안 표시는 연구자가 한 것임.

31) ‘사생’은 ‘풍경’을 발견할 수 있는 지각양태를 전제로 한 근대적 감각이었다. 일
 본의 경우, 메이지 20년대에 마카오카 사키가 하이쿠를 창작할 때 야외로 나가
 ‘사생(寫生)’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사생’을 통해 하이쿠의 전통적 주제에서 벗
 어났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시의 주제가 될 수 없었던 것을 시의 주제로 끌
 어왔다. 이때 ‘사생문(寫生文)’의 묘사는 단순히 외부 자체를 그리는 일과는 다
 르다. 거기에는 ‘외부세계’의 발견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호론적인 틀 구도
 의 전도 속에 있는, 지각양태를 바꾸는 전도의 문제이다.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보았다.³²⁾ 이 시기에 조운은 시조 창작에 있어 근대인으로서의 감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여러 방향으로 실험해보고 있었는데, 이 시조는 초기에 시도되었던 한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더불어 조운은 이 시조의 말미에 형식면에서 평시조로 장편, 즉 연작을 시험하며, 한 수 안에 초·중·종장 구별 없이 종장만 붙여보는 시험을 해보았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실험들을 시도한 이후에 조운은 평시조의 양식을 지키되 시조 각 장의 자유로운 분행을 시도함으로써 정제된 형식으로서의 시조성과 ‘읽는 시조’로서의 시각적 현대성을 함께 추구하는 형태의 시조들을 남길 수 있었다.³³⁾ 이는 조운이 시조 장르 자체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후 다룰 다른 작품의 예에서 조운의 시조는 소재 차원에서도 자연물보다는 민중의 일상을 주로 다루며, 그에 맞춰 구어체의 일상어를 시어로 활용함으로써 더욱 현대성을 획득해가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민중에 대한 관심과 형상화는 사회운동단체에서 활동했던 것과 관련된 그의 민족의식,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어갔던 조운 시조의 특징으로서 주목된다. 그러한 특징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이 시기 발표 작품들의 양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또 한 가을
제비 훨훨 날아가고
기럭이는 돌아오는데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3, 38쪽.

32) 같은 시기에 이병기는 이와 유사한 작품인 조운의 漢江小景을 실제 한강에 나가 눈으로 보고 느낀 바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하여, 고시조와는 차별되는, 현대시조의 모범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병기, 『時調란 무엇인가(十八)』, 『동아일보』, 1926. 12. 13.

33) 우은진, 『조운 시조의 텍스트성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에서 II장 2절의 내용을 참고.

내 故郷은 그 어텐고
하늘을 바라다 보니
맘만 깊어 지노나

나그네 아닌 몸이
鄉愁가 어인 일고
萬頃蒼波上에
목마른 沙上일레
千里에 한 보금자리가
날 기다리고 있으리

- 조운, 『思郷』 부분 -

위의 작품은 1926년 12월, 『동광』 제8호에 발표한 시조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다. 제목으로도 나타나 있듯 전체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지만, “나그네 아닌 몸이/ 향수가 어인 일고”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 고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단순한 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작품 말미에도 ‘병인년 가을 고향에서’라는 말이 달려 있다. 지리상으로는 고향 땅이지만 전과 같지 않은 고향이 되어버린 곳에서 변하기 이전을 그리워한다는 점에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난다.

조운의 시각에 부정적으로 보인 현실은 일제의 지배와 피폐해진 농촌의 삶이었을 것이다. 이는 사회운동단체 활동의 차원에서도 일제 주도의 교육 현실에 대응하고 농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조운에게 문화 차원에서 조선을 잃지 않기 위해 조선 민족의 문학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 것이 곧 시조 장르였고, 그 시조가 담아내야 할 지금-여기의 조선 민족의 주요 구성원은 정치적·경제적·계급적으로 압박받는 고향의 농민, 즉 일반 민중이었을 것이라고 본

다. 그것을 반영하듯 조운의 시조는 점차 민중의 일상적 생활과 정서를 담는 쪽으로 그 창작 방향을 잡아가는데, 자신 역시 그 민중 속에 포함시켜 언술하는 특징도 함께 보인다.

비스소리 잠스결에 듣고
열시구나 모스비로다
아아 豊年일세
잠든 채 무릎치네
오느라 작고 오려무나
남실남실

달도 서울달은
애잔하고 애잔하니
비도 서울비는
부즈럽고 귀찬컨만
나란게 農村아희라
깃불밧게

어제스날이 썩썩했으니
보리스대를 널었스리
누나는 들여싸코
어머니 뒷치울제
那那는 마르곶헤서
비아비아 노래하리

- 『못스비에 집생각이 난다』 부분 -

1925년 7월 20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위의 시조에서 조운은 농촌의 민중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시조의 화자인 ‘나’는 서울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고향인 시골에 내리는 비를 연상하고는 풍년을 예감하며 기뻐하고 있다. ‘나’는 서울에 내리는 비는 부질

없고 귀찮은 비지만, 시골에 내리는 비는 농사에 도움이 되므로 반가운 비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나’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골 풍경을 선명하고 정감 있게 그려내며, ‘농촌 아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한다.³⁴⁾

농촌은 조운이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였다. 그리고 농촌 아이, 곧 농민은 자신을 포함한 민중이었다. 이와 같이 민중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 의식은 시조집에 수록되어 있는 「題家」, 「상치쌈」, 「X月 X日(کمکم한 하늘)」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동질적인 민중의식은 「九龍瀑布」에서 민중들과 함께 작은 힘을 모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로 분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중 의식은 사회활동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조운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민중에게 언어와 사상과 노래 등을 주자는 기치를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조운에게 민중을 위한 노래란 자신을 포함한 민중의 현실세계를 실제로 보고 느낀 감각을 시조에 담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조운의 시조 경향은 근대 조선의 자연 풍경과 조선 민중으로서 자신의 실생활을 시조에 진솔하게 담아내는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오느냐 마느냐 소식조차 이리업나
너로하야 담근김치 맛도시고 빗변헛다
오만때 아니오고는 시니다니 하렷다.

올테면 오려무나 말테면 말려무나
漢陽城 一千里가 머대야 하로길을
차라리 내가고마지 기다리든 못하리.

오마하고 아니온죄에 별마련을 하라하면

34) 이를 근대의 보편성과 특수성, 중심/주변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민족 정체성의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은진, 앞의 논문(2015), 71-72쪽을 참조.

가네 곳가네하고 사흘밤만 두어둘사
 사립에 개짓는죽々 전들짐작 못하리

- 조운, 『苦待』 전문 -

1927년 2월 『신민』, 제22호에 발표된 위의 시조에는 “오마는 글을밧은 후 열흘이지내고 또열흘이지내도록 기척이엄는C君에게 사흘걸러 한首 식 보낸것”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편지 형식으로 대화체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상의 상황과 정감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성이 돋보여 현재 독자들의 공감대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조운 시조의 특성은 문학으로서 시조의 현대성 획득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체득한 민중에 대한 생각이 맞물린 사고 위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갔던 것이었다.

조운은 1930년대 초에도 『돌아다 뵈는 길』(『동광』, 1931. 1), 『비 맞고 찾아온 벗에게』(『동광』, 1923. 8), 『병우를 두고』(『가톨릭 청년』, 1933. 12) 등 위의 작품과 유사하게 대화체로 친구에게 정감 있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시조들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농촌의 생활 (“어젯밤 비만 해도 보리에는 무던하다”)뿐만 아니라 곤궁하고 억압받는 삶(“죽은 사람 갇힌 사람 앓고 드러누운 사람/ 해마다 겹쳐겹쳐 離別이 이리 자지고나”)도 민중의 일상으로 언술되어 있다. 이러한 일상에 대한 경험은 『만월대에서』(『문학』, 1934. 1), 『선죽교』(『중앙』, 1934. 9) 등에서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1937년 영광체육단 사건으로 투옥되어 지내는 생활을 시조 속에 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 민중이 처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일부 탁상수 시조의 경우

늘샘 탁상수의 경우, 1925년 7월 중앙매체에 처음으로 작품을 발표했다. 와룡이라는 필명으로³⁵⁾ 『조선문단』 제10호에 발표한 자유시 『저물

어오는 荒涼한 廢墟』가 첫 작품이었다. 그런데 늘샘의 작품은 조운의 경우와는 달리 독자투고 당선의 형태로 게재되어 있었다. 기성문인이 아닌 신인 또는 문학 지망생의 위치였다. 그 자유시를 시작으로 늘샘은 『조선문단』과 『동아일보』에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는데, 그의 시와 시조는 이후 1926년까지 『조선문단』에서 당선시의 형태로 발표되었다.³⁵⁾

늘샘이 처음 발표한 시조는 1926년 5월 29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時調」였다. 『조선문단』 제16호의 「社告」에서 “이번號부터 六堂氏의 時調 講話도 있스니 時調投稿를 만히하시면 새로欄을내여 考選後發表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는 직후, 같은 달에 중앙매체에 시조를 발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같은 시기인 6월 『조선문단』 제17호에도 바로 「時調 三首」라는 시조를 투고하여 당선·발표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늘샘은 그 이전까지는 자유시 작품을 더 많이 발표했으나, 「時調」 발표를 기점으로 시조를 더 많이 발표하게 되었다. 더불어 1926년 8월부터 통영 지역에서 시조동인지 『참새』를 발간하게 되면서 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수의 시조를 발표했다.

이때 늘샘 역시 조운과 마찬가지로 시조부흥론 이전부터 시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추측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1920~30년 사이에 중앙매체에 시조를 많이 발표한 문학인 중 한 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늘샘은 그 시기에 잡지와 신문을 모두 포함한 중앙매체에 총 227수의 시조를 발표함으로써, 시조 발표 수로는 당대 시조 창작자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었다.³⁷⁾ 1926년에 발표한 시조가 첫 창작이

35) 그는 탁상수라는 본명보다는 주로 필명을 사용하여 작품을 발표했는데, 가장 즐겨 쓴 이름은 늘샘이었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명기하여 ‘통영 늘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보한, 앞의 책, 105쪽.

36) 이때 꾸준한 투고와 당선은 근대문학장 진입에 대한 늘샘의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37) 1위는 이병기였고, 조운은 잡지 발표 순위에서 11위에 올라 있었다. 그 외 이은상, 정인보 등의 시조시인 외에도 박아지, 주요한 등도 순위에 올라 있어서 당대 시조 창작의 넓은 자장을 보여주고 있다. 강영미, 「배제의 논리로 구축된 ‘시조

었다면, 그 시기에 그렇게 왕성한 창작과 발표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둘째, 첫 시조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같은 해에 시조동인을 결성하여 그 주축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³⁸⁾ 이는 이전부터 시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과 교류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고 본다.³⁹⁾ 셋째, 그가 시조창에 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⁴⁰⁾ 늘샘은 근대문학장에 진입하며, 음악으로 향유하던 시조를 문학으로 창작하는 변용을 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 변용은 당대에 시조를 고시조에서 현대시조로 변용시키고자 하는 1920년대 시조 부흥론의 핵심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바다⋈가 언덕길에
 숲풀조차 그윽한데
 사람은 드물거늘
 못즘생만 날뛰느냐
 개여호 범인체함을
 더욱미워 하노라.



즘생이 모질거던
 사람도 모질거나
 사람이 모질대도
 즘생이야 석겨갈가
 언제나 이길을지나
 것침업시 갈거나

부흥론', 『한국시학연구』 제39호, 한국시학회, 2014. 4, 65쪽의 <표4>를 참고.

38) 늘샘은 『참새』 동인 중에서도 그 매체에 가장 많은 수의 시조 작품을 발표한 인물이었다.

39) 공유와 교류라는 측면에서 본격화된 동인 활동으로 지역에 시조 창작 기반을 만들어 통영 지역에서 장응두, 김상옥 등의 시조시인을 배태할 수 있었다는 점도 시조 담론과 지역문학연구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40) 임선묵, 앞의 책, 72쪽; 김보한, 「김보한의 문화칼럼-늘샘 탁상수는 우리의 전통음악에 심취했다」, 『한산신문』, 2014. 5. 30

(丁卯七月)

- 統營無名子, 『社會相』 부분 -

위의 시조는 늘샘이 ‘통영 무명자’라는 필명으로 1927년 7월 27일 『동아일보』에 발표한 시조이다. ‘풍속시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인간다움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짐승에 비유하며, 당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특히 범인 체하는 개와 여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중간자이면서 최강자인 범을 흉내 내는 존재인 개와 여우는 당대 사회를 고려할 때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문명의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근대 제국주의의 사고에서 서구 열강을 모방하며 자신들이 문명의 중심인 척 식민지 조선을 주변으로 밀어 넣는 일제이다⁴¹⁾. 둘째, 조선사회에서 식민당국인 일제의 권력에 기대어 민중을 억압하는 친일세력이다. 셋째,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농민들을 착취하는 중간관리자들이다. 이때 화자는 개와 여우 같은 짐승이 두려워 마음 놓고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 권력 억압 구조의 최하위층인 민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중의 시각에서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박태일이 평가하고 있듯이, 늘샘의 시조는 대체적으로 “소박한 자연 서정과 생활 속에서 얻은 자잘한 감흥”⁴²⁾을 담고 있는 작품이 많다. 그러나 그의 시조 중에는 인용한 작품과 같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담은 작품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당대인의 비판적인 시각을 시조에 담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41) 문명의 중심과 주변에 관해서는 우은진, 앞의 논문(2015), II장 1절 가항의 내용을 참조.

42) 박태일, 앞의 논문, 355쪽의 각주 18번을 참조.

서회(書懷)

애쓰고 힘을드려
몇해두고 싸흔(積)것이
이제와 돌아보니
일운것이 하나업네
일마다 이러할진대
무엇한다 하리오(1수)

화잡이

화들고 나선님아
길이힘타 실향마오
발압해 닳는대로
차던지고 나가면
벼르고 찾든한길이
쉬나올가 하노라(3수)

- 늘샘, 『구고수제(舊稿數題)』 부분 -

위의 작품은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거화동맹의 벽신문 『거화』에 발표된 시조이다. 저항적인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작품의 내용도 비판적이면서 의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수에서 애써서 쌓아온 것이 모두 수포가 되었다는 언술은 『거화』라는 초기 수록 매체의 성격과 활동을 감안할 때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첫째, 벽신문을 발행하고 강연회를 기획해도 일제의 금지에 의해 무산되는 거화동맹의 상황이다. 둘째, 노력해도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식민지 피지배자이자 프롤레타리아인 민중의 현실이다. 어느 쪽이든 일제의 압제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허무함으로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가진다. 셋째 수에서는 그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횃불을 들고

나선 인물을 등장 시켜 현실이 어렵더라도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을 한다. 곧 현실 비판에 이어서 혁명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其三

세찬 된바람은 밤낮으로 불어오고
 洑또랑 살얼음은 자고나면 늘어가니
 눈보라 흩날릴새도 멀잔흔가 하노라

○ ○

손발이 다달도록 쉴새업시 일을해도
 깃븐일 못보았고 편한날이 하로업다
 업는놈 살림살이란 다이런가 하노라

○ ○

세간을 팔자하니 路需나마 되단말가
 가자니 路需업고 잇자한들 배가곱하
 불뵈는 가슴을안고 닳는대로 헤메노라

—己巳年, 늦가을—

- 늘샘, 『咀呪할 가을』 부분 -

1929년 12월 20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시조로 ‘업는이의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작품이다. 추수를 해야 할 가을에 춥고 배고프기만 한 민중의 괴로운 현실을 담고 있다.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다가올 겨울 준비는커녕 지금 당장도 조금도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삶이다. 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노잣돈조차 마련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입장은 “이러니 저러니해도 업는놈만 썩고나”라는 발언으로도 직접적으로 언술된다. 그렇듯 배고픈 현실에서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피압박 민중의 서러운 현실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담아냄으로써, 이 시조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발생시키고 있다.

1933년 11월 1일 『동아일보』에 발표한 『허물어지는 가을』에서도 늘샘

은 농민들이 일년 내내 애써 농사를 지어서 넓은 들에 곡식들을 기름지게 가꾸어봤자 그것들을 어딘가로 보내고 “주린배 헐벗은몸에 겨울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때 민중을 착취하는 대상은 당대에 자본과 권력을 소유한 이들로 부르주아이자 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민중을 착취하는 현실을 맹랑한 세태라고 표현하며 언제 그 현실을 극복하고 바로 살아 볼 것인지 언술함으로써 이 시조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지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조운의 사회의식이 민중의 일상에 대한 관심으로 시조 속에 표현되었다면, 늘샘의 그것은 이상의 예시와 같이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표출되었다. 그런데 조운의 경우 민중의 일상에 대한 표현이 전반적인 조운 시조의 특징을 이루었다면, 늘샘의 사회의식 표출의 경향은 그의 일부 시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었다.

물론 양적으로 보았을 때, 늘샘 시조의 전반적인 경향은 자연에 대한 소박한 관조였다. 이는 시조창으로 익혀온 관습적인 시조 경향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늘샘 시조가 그 경향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서 고찰하고 있는 일부의 시조는 늘샘의 시조 경향을 그 한 가지로만 파악하여, 그의 사회 인식과 창작의 관계를 연결하여 검토하려 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해준다. 늘샘은 노래로서의 시조 전통에 익숙한 인물이면서도, 근대문학으로서의 시조 창작에 대해 고민하며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를 그 안에 담는 것으로 실험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4. 나오며

일반적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1920년대 문학은 ‘민족문학’과 ‘계급문학’의 대립 양상으로 서술되곤 한다. 그에 따라 당대의 민족문학은 계급문학에 대립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문학이나 그 유파로 한정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민족문학이란 의미에는 복고적이고 반민중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920년대의 시조와 시조부흥론은 그러한 민족문학의 표상으로 여겨진다.⁴³⁾ 즉 1920년대의 시조는 사회주의 사상과는 대립되는 복고적·반민중적인 우파 민족주의 문학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대에도 시조 논쟁을 벌일 때 계급문학 진영의 문인들은 주로 그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시조를 비판하고 있었다.⁴⁴⁾

그러나 1920년대의 시조문학은 실제 창작 차원에서 복고적·반민중적인 성격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작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었다. 조운은 그의 시조론을 드러낸 글에서 시조부흥론이 근대문학장에 전면적으로 대두한 것과 함께 민족과 조선적인 것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화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 시기의 보람으로 꼽고 있다.⁴⁵⁾ 그리고 시조 창작의 차원에서는 현대적·민중적인 작품 경향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이는 늘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조운과 탁상수는 민족을 같은 땅 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 경험을 함께하면서 문화적 공통성을 만들어 온 영속적인 공동체로 여기고 있던 1920-30년대 민족주의자들⁴⁶⁾과 일정 부분 일치하는 민족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⁴⁷⁾ 그러나 그

43)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225쪽;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54쪽.

44) 김동환의 『時調排擊小議』가 그 대표적인 글이다. 김동환, 『時調排擊小議』, 『조선지광』, 1927. 6, 1-11쪽.(참고로 96쪽 이후 새로 1쪽부터 시작하고 있다.)

45) 조운, 앞의 글, 29쪽.

46)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1, 99쪽, 174쪽.

47) ‘민족’을 발전적인 미래로 향하는 과정 중 현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던 사회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 당대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식민지 피지배 상황에서 민족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그것은 한시적 역사 현상이라 여기며 미래에 더 역점을 두는 방식을 주로 취했다. 참고로 이러한 민족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시각은 당대 시조 논쟁을 벌이던 매체 중 계급문학의 입장을 담지하고 있던 『조선지광』에 게재된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장도빈의 『朝鮮民族의 未來를 論함』(『조선지광』 창간호, 1922. 11)이 대표적이다.

들의 민족주의는 식민지배체제하에서 민족문화운동을 전개하며 점차 타협적인 자치론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최남선, 이광수 등의 우파 민족주의⁴⁸⁾와는 다른 지점에 서 있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합작을 이룰 수 있는 좌파 민족주의의 사상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사회활동과 시조 창작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운과 늘샘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의 지역 청년단체에서 주요 인물로서 활동하면서도 시조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며, 시조를 당대 조선 민중의 문학 또는 민중의 현실을 담을 수 있는 조선 문학으로 만들어가고자 했던 시인들이었다. 그런 그들은 사회의식을 시조에 담아내는 차원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조운이 민중의 일상에 대한 관심을 시조 전반에 드러냈다면, 늘샘은 일부의 시조에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이는 좌파 민족주의 시조의 다양한 창작 양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조운과 늘샘의 시조는 1920년대의 시조 인식을 우파 민족주의에만 정도된 것으로 보고 있는 일반적 견해를 재고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권구현의 좌파 시조 외에, 시조부흥론의 자장 안에서도 좌파 민족주의 문학으로서의 시조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 실제 창작 방향과 양상이 여러 갈래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당대 시조의 지형을 더욱 복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지점까지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역 사회단체운동의 대중 계몽활동과 시조 장르의 관계를 다른 문학 장르와 연관시키거나 비교하여 그 지형을 전체적으로 보다 면밀하게 조망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앞으로 반드시 탐구하여 채워 넣어야 할 과제이다. 이 부분이 더 지속적으로 연구될 때, 이 논문이 가지는 문제의식도 보다 더 타당성을 가지게 되리라고 본다.

48) 전승주, 『1920년대 민족주의문학과 담론』,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 근대문학과 민족-국가 담론』, 소명출판, 2005, 145-147쪽.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문단』

『조선지광』

조운, 『조운시조집』, 조선사, 1947

강영미, 「배제의 논리로 구축된 ‘시조부흥론’」, 『한국시학연구』 제39호, 한국시학회, 2014. 4, 59-88쪽

고현철, 『구체성의 비평』, 전망, 1997

김보한, 「김보한의 문화칼럼－늘샘 탁상수는 우리의 전통음악에 심취했다」, 『한산신문』, 2014. 5. 30

_____, 『탁상수의 발자취와 시세계 고찰』, 풍해문화재단, 2015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7

박경수,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1

박태일, 「근대 통영지역 시문학의 전통」,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통영·거제지역 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1999, 347-387쪽

우은진, 「조운 시조의 텍스트성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_____, 「1920-40년대 시조 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대 ‘청년’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제37호, 문화과학사, 2004. 봄, 207-227쪽

_____, 「청년의 시대－1920년대 민족주의 청년담론 연구」,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 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역사비평사, 2007, 257-307쪽

이병기, 『가람文選』, 신구문화사, 1966

임선묵, 『〈참새〉지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3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전남문인협회 · 전남문학백년사업추진위원회 편, 『전남문학변천사』, 한림, 1997

전승주, 『1920년대 민족주의문학과 담론』,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 근대문학과 민족-국가 담론』, 소명출판, 2005, 137-172쪽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3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Jo Un and Tak
Sang-su
- Focusing on the Activities in
Loc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nd Sijo
Writing -

Woo, Eun-Jin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and comparing Jo Un's and Tak Sang-su's social activities and Sijo writing, who participated in social movements respectively in Yeongkwang, Jeollanamdo, and Tongyeong, Gyeongsangnamdo, and simultaneously, established their identity and status as modern Sijo poets in 1920s. Sijo in 1920s is usually defined as right-wing, nationalistic literature in confrontation with proletarian literature. However, Jo Un and Tak Sang-su worked as main figures in local youth organizations with socialist inclination and, at the same time, wrote Sijo poems, and therefore make us reconsider the stereotype. On the other hand, they displayed differences in how to express their social consciousness through their Sijo poems. While Jo Un expressed his interest in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in his Sijo poems in general, Tak Sang-su directly made his critical voice heard regarding the reality of the society in some of his Sijo poems. In this paper, those social activities and Sijo writing of their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features of Sijo discourse in 1920s.

Key Words : Jo Un, Tak Sang-su, Sijo, 1920s, Loc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 논문접수 : 2016년 7월 15일
■ 심사완료 : 2016년 8월 4일
■ 게재확정 : 2016년 8월 16일

